

한주간 쉽게 보는

#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71



# Contents

※ 2025.3.20.(목) 기준(대상 기간 : 2025.3.13.~2025.3.19.)

##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 수소

- 수소차 보조금 제한 계열사 제외 미봉책 (2025.03.13) ..... 1
- 새만금 수소 밸류체인 실증사업 협력 논의 (2025.03.13) ..... 1
- 사천시, 사남유천공영주차장 수소차 충전시설 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2025.03.13) ..... 1
- 창원시 성주수소생산기지, 운영할수록 적자 누적 (2025.03.13) ..... 2
- 군산시,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52대 구매 지원 (2025.03.13) ..... 2
- 1,050억 들인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개점휴업’ (2025.03.13) ..... 3
- 道 그린수소 아파트 건립...탄소 중립 ‘선도’ (2025.03.13) ..... 3
- 동해 수소·울산 자동차 산업 연결 초광역 산학협업체 출범 (2025.03.13) ..... 4
- 독일 프라이온호퍼 연구 그룹, 광양서 수소도시 조성 협력 논의 (2025.03.14) ..... 4
- 전남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계속 추진 (2025.03.17) ..... 4
- 인천에 수도권 최초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건립 (2025.03.17) ..... 5

### ▪ 우주

- 전국 유일 고품 우주항공해설사 보수교육 (2025.03.14) ..... 6
- 진주시 ‘초소형위성 진주셋’ 발사 성공...우주항공선도도시 도약 (2025.03.16) ..... 6
- “항공·우주 공부할래요!”...한림공고 새출발 (2025.03.18) ..... 7

##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 수소

- KTL-포항TP, 수소 생산활용 분야 연구개발 협약 (2025.03.13) ..... 7

- UAM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김포과학기술고와 UAM 인재양성 ‘맞손’ (2025.03.19) ..... 8
  
- 우주
  - 우주청, 사우디 방문해 우주산업 협력 강화 (2025.03.13) ..... 9
  - 누리호 5차 발사 탑재될 ‘우주검증위성’ 7기 선정 (2025.03.13) ..... 10
  - 민·군 합쳐 우주산업 키운다...공동 포럼 출범 (2025.03.18) ..... 10

##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 주요 내용

- 수소
  - 빈센-KRE,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 선박 공동 연구개발 AIP 획득 (2025.03.13) 11
  - 한화,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인증 획득...“친환경 선박 시장 공략” (2025.03.13) ..... 11
  - 액화수소 밸브 국산화·수소버스 2000대 도입...수소경제의 개척자들 (2025.03.13) ..... 12
  - 인하대-인천시교육청과 2차전자·수소분야 창의융합진로교육 ‘맞손’ (2025.03.13) ..... 12
  - “수소 공급망 잡는 자가 승자” 바다위 9천km 실어나르는 日 (2025.03.13) ..... 13
  - 수소 산업 빠르게 키우는 중국...韓 위기감 가져야 (2025.03.14) ..... 13
  - “SMR·수소환원제철·CCUS 등 기후테크 실증지원 확대해야” (2025.03.13) ..... 14
  
- UAM
  - 유아이헬리콥터, 이브에어모빌리티와 UAM 시장 진출 준비 (2025.03.14) ..... 14
  
- 우주
  - 민간 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 발사대도 독자개발 성공...다음 달 해상 운송 (2025.03.17) .... 15
  -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최종 발사 성공...초기 운영 돌입 (2025.03.13) ..... 16

##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b>수소차 보조금 제한 계열사 제외 미봉책 (2025.03.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가 수소차 보급사업에서 특정 제조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동일 법인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 그러나 계열사까지 범위를 확장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li> <li>- 부산시 사례를 보면 지난해 수소차 200대 중 148대가 현대자동차 자회사인 현대캐피탈을 통해 리스로 확보되어, 보조금 상당 부분이 특정 기업에 집중됐음. 수소차 보급정책의 본래 취지는 일반 시민들의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였으나, 실제로는 기업 업무용 차량에도 동일하게 큰 규모의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비판이 있는 실정</li> <li>-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자사 구매만 제한하고 계열사는 제외해 여전히 우회 가능성이 존재함.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법인·계열사 범위를 명확히 포함하고, 일반 국민 보급 확대 중심의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li> </ul>
지자체	<p>□ <b>새만금 수소 밸류체인 실증사업 협력 논의 (2025.03.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개발청이 충주시의 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수소추출시설, 압축기, 튜브 트레일러 등을 확인하고 새만금지역의 수소 밸류체인을 강화할 실증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li> <li>- 음식물쓰레기에서 얻은 바이오가스를 고순도 수소로 전환해 공급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자원순환형 수소사업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주력함. 이를 통해 새만금지역이 탄소중립 도시건설과 스마트 모빌리티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다지는 초석 마련</li> <li>- 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에서는 하루 500kg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 순환형 에너지 공급체계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음. 새만금개발청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등과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안정적인 수소 공급과 확산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견학·협력을 이어감. 향후 이 사업을 통해 새만금지역이 수소 관련 산업의 기반지로 거듭날 가능성이 증가</li> </ul> <p>□ <b>사천시, 사남유천공영주차장 수소차 충전시설 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2025.03.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 사천시가 사남유천공영주차장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 사업 개요, 추진 현황 및 일정이 공유되고 주민들의 다양</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한 의견이 청취됨. 시공사인 하이넷(주)의 객관적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민의 이해를 높이며 협력 기반을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남유천공영주차장 내 충전소는 승용차부터 버스, 화물차까지 충전 가능한 특수 수소충전소로 설계됨. 최대 80kg/h 이상의 수소를 공급해 동시에 버스 2대가 충전 가능하며, 오는 6월까지 설계·행정절차를 마친 뒤 8월에 착공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됨. 본 충전소가 운영되면 지역 내 친환경 차량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li> <li>- 환경부·한국가스공사·현대차 등 11개사가 출자해 설립한 하이넷(주)가 시공과 운영을 맡아 안정성을 높일 계획. 시 관계자는 이 충전소가 사천시 수소차 보급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수소차 구매를 주저하던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봄. 지역 내 수소생태계 확산과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li> </ul>
	<p><b>□ 창원시 성주수소생산기지, 운영할수록 적자 누적 (2025.03.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원시 성주수소생산기지가 가동률이 떨어지고 적자가 누적돼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설비 2대 중 1대만 가동 중이고, 운영 비용이 수익을 웃돌아 가동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임. 시와 시의회는 운영방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li> <li>-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생산비 대비 판매단가가 낮아 계속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안 마련이나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발표되지 않았음. 시설이 애초에 추진될 때부터 수요 예측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li> <li>- 시는 산업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현 시점에서 가시적 해결책이나 명확한 추진계획은 불분명함. 지역 내 수소 공급 인프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재정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는 수요 확보와 운영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임. 시민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적절한 해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li> </ul>
	<p><b>□ 군산시,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52대 구매 지원 (2025.03.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산시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해 승용 30대와 고상버스 22대, 총 52대의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 정책에 맞춰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승용 한 대당 3,450만 원, 고상버스 한 대당 최대 3억 8,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li> <li>- 구매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군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신청 가능함. 차량 출고와 등록 순서에 따라 보조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요구됨. 보조금 신청은 자동차 영업점을 통해 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산시 관계자는 수소차 보급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달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봄. 시민들에게 수소전기차가 차세대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친환경차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li> </ul>
	<p><b>□ 1,050억 들인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개점휴업’ (2025.03.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원 액화수소플랜트가 1,0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가동이 지연됨. 지난 2023년 8월 준공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사·시행사 간 설비 인계와 성능 시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실제 상업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액화수소 생산에 필요한 성능 검증과 매매 계약 성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기대됐던 지역경제 효과가 낮아지는 형국</li> <li>- 창원시의회 박해정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 매몰 비용이 발생하며, 계속 추진하더라도 정상화 비용이 새로이 필요함을 지적함. 그러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시설을 정상화해 가동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제시됨. 홍남표 창원시장은 현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사업의 무리와 수요 예측 미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힘</li> <li>- 액화수소플랜트가 안정적으로 가동되면 수소 공급이 원활해져 다른 연관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현재 설비 인계와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커 조속한 대책 마련이 중요. 시와 민간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지속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예산 낭비와 지역 산업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li> </ul>
	<p><b>□ 道 그린수소 아파트 건립...탄소 중립 ‘선도’ (2025.03.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린수소 기반의 탄소중립 아파트를 화북2지구에 조성하기로 밝힘. 화북·도련·영평동 일대에 2033년까지 5500세대 규모로 건립하며, 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난방과 온수 공급에 활용</li> <li>- 이른바 ‘그린수소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나 풍력발전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하는 순환형 모델로, 거주민들에게는 저렴한 난방비와 친환경 주거환경을 제공. 국토교통부·LH가 주도하며, 절반가량이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으로 공급되어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li> <li>- 제주도는 이 아파트를 시작으로 2050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가속화한다는 계획. 이미 행원리와 북촌리 풍력발전단지에서 하루 1~3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있어 이를 주거지와 교통으로 연계할 예정임. 탄소 제로 모델 구축으로 제주가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가능성이 증가</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b>동해 수소·울산 자동차 산업 연결 초광역 산학협의회 출범 (2025.03.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 동해 북평국가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수소산업과 울산 자동차산업을 연계하는 초광역 산학연협의체가 출범.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발족한 협의체로, 수소·석유화학·자동차 분야 기업들이 참여</li> <li>- 협의체는 ‘수소 융복합에너지 연계산업 산학연협의체’ 라는 이름으로 그린수소 생산 및 실증, 나아가 동해안 에너지산업 벨트 구축까지 목표로 설정함.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삼척시, 동해상공회의소, 강원테크노파크, 한국수소산업협회 등이 협업해 그린수소 생산을 울산의 석유화학·자동차 산업과 연결할 방침</li> <li>- 산업부는 지난해 말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대상으로 북평국가산단을 수소에너지 주관지역으로 선정함. 협의체는 향후 연구개발, 네트워크 활성화, 기업 지원 등을 통해 강원과 울산 양 지역이 수소산업 발전의 양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계획</li> </ul>
	<p>□ <b>독일 프라운호퍼 연구 그룹,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 협력 논의 (2025.03.1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 그룹이 광양시를 방문해 수소도시 조성사업 협력 방안을 모색함.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유럽 최대 응용과학 연구기관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소 분야 첨단 연구를 선도하고 있음. 광양시는 이들 연구진과 고분자전해질막 (PEM) 수전해 기술, 청록수소 활용 등 구체적인 협력 추진</li> <li>- 방문단은 광양초남액화수소 충전소 등을 견학하며 시설 운영과 충전 효율성, 안전성 등을 살펴봄. 이어 광양만권 소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자문 및 R&amp;D 협력 방안을 논의함. 광양시는 이 과정을 통해 도시 기반시설과 산업체가 연계된 수소도시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li> <li>- 시는 앞으로 수소생산시설 타당성 조사와 수소산업 육성위원회 자문을 통해 해당 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 목표는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특화도시 구축으로, 수소 관련 첨단 기술과 산업 전반이 집약된 친환경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임. 독일의 선진 노하우를 도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소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 표명</li> </ul>
	<p>□ <b>전남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계속 추진 (2025.03.17)</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남도가 ‘예비수소 전문기업 지원사업’ 을 올해도 이어가며, 지난해 사업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2차년도 추진이 확정. 2024년 1차년도에 14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했고, 이 중 일부 기업이 특허 등록·출원 등 기술 혁신에 성공해 ‘수소전문기업’ 지정 요건에 근접</li> <li>- 전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비수소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인증, 컨설팅 등을 지원해 기술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임. 지원사업에서 우수 성과가</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나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전문기업 인증을 획득해 추가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수소기업 육성에 긍정적 효과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남도는 동부권(여수·순천·광양)에서 ‘광양만권 수소배관망’ 구축 사업을, 서부권(영광·한빛·원진·중심)에서 ‘청정수소 산업벨트’를 기획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소 인프라를 확대 중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전남을 수소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는 실정</li> </ul>
	<p>□ <b>인천에 수도권 최초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건립 (2025.03.17)</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시가 서구 왕길동에 2027년까지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함. 총 1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하루 1.3t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설비와 13t 규모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갖춘. 생산된 수소는 동일 부지 내 충전소와 주변 충전소로 공급되어 수소 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에 기여할 전망</li> <li>- 기존에는 충남·경기에서 생산된 수소를 인천으로 공급했으나, 이제 인천시 자체적으로 수소를 생산·공급해 운송비 절감과 수급 안정을 동시에 확보함. 게다가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후 재사용해 정부의 청정수소인증도 획득할 방침</li> <li>- 인천시는 이번 사업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고, 수도권 내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임. 향후 도시가스 안정적 공급, 수소차 확산 등과 연계해 청정에너지 공급체계를 강화할 예정. 참여 기관들은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기술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 표명</li> </ul>

##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p>☐ <b>전국 유일 고흥 우주항공해설사 보수교육 (2025.03.1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흥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활동하는 우주항공해설사들을 대상으로 3일간 보수 교육을 실시. 이번 교육은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같은 세계 우주개발 흐름부터 최첨단 로봇기술, 우주개발의 역사와 방향성 등을 다루며 해설사 역량을 크게 높임. 전문적인 지식뿐 아니라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기법도 강조</li> <li>- 해설사들은 과학 콘텐츠 기획, 커뮤니케이션, 정책, 생명과학, 관광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강연을 듣고, 다양한 체험과 실습을 통해 해설 품질을 높임. 우주발사대와 관광을 결합한 콘텐츠 개발 노하우도 학습함. 이를 통해 고흥이 가진 우주발사체인프라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 모델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예정</li> <li>- 교육을 마친 우주항공해설사들은 연중 운영되는 우주과학열차나 지역 축제, 국내 과학 행사 등에서 활동하면서, 고흥 우주항공 분야를 폭넓게 홍보할 예정. 고흥군은 이들을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우주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우주관광 선도 지자체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임. 과학 해설 전문인력이 확보된 만큼,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우주산업 육성에 청사진을 품고 있는 실정</li> </ul>
지자체	<p>☐ <b>진주시 ‘초소형위성 진주셋’ 발사 성공...우주항공선도도시 도약 (2025.03.16)</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 진주시가 자체 개발한 초소형위성 ‘진주셋-1B’ 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초기 교신에도 성공. 진주셋-1B는 2U급 큐브위성으로, 내부에 카메라 3대를 장착해 지구 사진 촬영 임무를 수행할 계획. 우리나라 지자체가 직접 위성을 개발해 발사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지역 우주산업 발전의 가능성을 크게 열었다는 평가</li> <li>- 시는 이전에 발사됐던 진주셋-1이 최종 사출에 실패함에 따라, 기존 설계도를 활용해 재제작한 진주셋-1B를 발사한 뒤 성공을 거둠. 경상국립대 등 지역 협력 기관과 함께 초소형위성 부품의 일부를 국산화해, 3D 프린팅 등 혁신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이 특징임. 약 3개월간 운용하면서 지구 관측 임무를 수행하고, 얻게 된 데이터를 분석해 위성 활용 노하우를 축적할 방침</li> <li>- 진주시는 이번 발사 성공을 계기로 위성 활용과 우주환경 시험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해 ‘우주항공선도도시’ 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힘. 앞으로 6U급 ‘진주셋-2’ 도 개발해</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해수온·해색 탐지와 연근해 감시, 전문인력 양성 등에 활용할 예정임. 지자체 차원에서 우주산업에 적극 진출해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전국적인 우주 관련 협업 체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p> <p>□ <b>“항공·우주 공부할래요!” ...한림공고 새출발 (2025.03.18)</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한림공업고등학교가 올해 전국 첫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되어 새롭게 출발. 기계·토목·건축·전기·전자 등 기존 5개 학과 체제를 재정보해 민간 항공우주 산업에 특화된 교육 과정을 도입. 지자체, 교육청, 기업이 협약을 통해 인재 양성에 직접 나서는 형태로, 실무와 연계한 교육 환경 조성이 특징</li> <li>- 1학년들은 GPS 측량기와 드론을 활용해 토지 면적을 측정하거나, 인공위성 원리를 익히는 등 항공우주 기초 지식을 학습함. 3학년은 드론 모터 전선 연결 등 실습 위주의 과정을 거치며, 항공우주 분야 취업과 자격증 획득에 직접적인 도움을 얻고 있음. 입학생 경쟁률 또한 높아, 미래 항공우주 관련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확인</li> <li>- 한림공고는 향후 5년간 135억 원이 투입되어 전담 교원 확충, 교육환경 개선,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민간 항공우주 산업이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우주청과 지자체, 기업 간 협업으로 학생들의 취업 기회 역시 폭넓게 열릴 전망</li> </ul>

##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b>KTL-포항TP, 수소 생산활용 분야 연구개발 협약 (2025.03.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포항테크노파크(포항TP)가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전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수소 관련 신규 표준, 기술 정보 등을 교류하며 인증체계 구축에 협력할 예정임. 수소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강화가 핵심 목표로 설정</li> <li>- 연구개발(R&amp;D)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국내외 표준 및 최신 기술을 교류함으로써,</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수소 분야의 신기술을 확보하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방침임. KTL과 포항TP는 인력 교류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소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표준화와 전문성 향상을 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 기관은 향후 수소 생산·활용 전 주기에 걸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R&amp;D와 인증, 시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특히 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 수소시장의 확대와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수소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li> </ul> <p>□ <b>‘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과천에서 19일 개소 (2025.03.1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이 과천에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감. 이 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오는 2026년 평택 브레인 시티 일반산업단지에 구축될 ‘청정수소 실증화 지원센터’의 건립과 운영을 맡게 되는 실정</li> <li>- 청정수소 실증화 지원센터는 국비 300억 원 등 총 480억 원을 투입해 수소 관련 연구개발(R&amp;D)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할 거점 시설임. 연구원은 기업의 RE100 달성과 글로벌 진출 지원, 수소 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구축 등에 집중할 예정</li> <li>- 평택시 등 지자체는 이 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해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를 넓히고, 수소 분야의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성과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 RE100 실현과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며, 수소 전문기업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li> </ul>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b>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김포과학기술고와 UAM 인재양성 ‘맞손’ (2025.03.1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이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양 기관은 지역 기반의 UAM 산업 인재를 육성하고,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실무 역량이 우수한</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학생들을 배출하기 위한 포괄적 협력을 전개할 계획. 미래 교통산업으로 주목받는 UAM 분야에 특화된 교육으로 학생들이 빠르게 기술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UAM 관련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양 기관 간 정보교류 체제 구축,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 등 다각적 협력사항이 포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자율주행센터 등 첨단분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김포과학기술고 또한 학업과 취업을 연계한 교육 모델을 강화해, 빠르게 성장하는 UAM 산업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출할 계획</li> <li>- 용기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특성화고와의 산·학 협력을 한층 확대해나갈 계획. 이를 통해 경기도 UAM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교통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기술적·인적 자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설정. 나아가 UAM뿐 아니라 다른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협약형 특성화고 제도를 활용해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방침</li> </ul>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우주청, 사우디 방문해 우주산업 협력 강화 (2025.03.1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주항공청이 12개 우주기업으로 구성된 사절단과 함께 사우디 리야드를 방문해 사우디 우주청(SSA)와 업무협약을 체결. 해당 협약을 통해 심우주 기술과 유인 우주 비행 프로그램, 위성 발사와 위성 탑재체, 우주 과학·공학 역량 강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이 추진됨. 이는 국내 우주기업의 중동 진출을 가속화하고 양국 간 시너지를 높이는 좋은 사례로 주목</li> <li>- 이어 12일에는 ‘한-사우디 우주협력 세미나’를 열어 위성개발, 초소형위성·영상 분석, 발사서비스, 지상국 서비스, 우주탐사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참여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함. 이 자리를 통해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영역과 기술을 소개하고, 향후 구체적인 파트너십을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킹 시간을 확보함. 사우디가 우주를 국가 핵심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만큼,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진출 기회가 예상</li> </ul> </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주항공청은 사우디아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이 우주기술 발전과 산업 생태계 확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 사우디는 위성 통신 기술에 투자해 ‘사우디셋’ 시리즈를 발사하고 있으며, 향후 대형 프로젝트도 계획 중임. 우주청장은 이러한 협력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우주산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언급.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되며 국내 우주산업 역량 강화를 촉진할 전망</li> </ul> <p><b>□ 누리호 5차 발사 탑재될 '우주검증위성' 7기 선정 (2025.03.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연구원이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지원사업’에 따라 내년 누리호 5차 발사 때 큐브위성에 실어 우주환경 시험을 진행할 탑재체 7기를 선정. 이 사업은 국내 기업이 개발한 전기·전자·반도체 소자 등을 실제 우주 환경에서 검증하여 성능을 입증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됨. 내년 부터 2027년까지 120억 원을 투자해 국내 우주부품 자립을 지원</li> <li>-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SK하이닉스, 인세라솔루션, 모멘텀스페이스, KAIST, 코스모비, 인터그래비티 테크놀로지스 등 6개사로 총 7개 품목이 발사에 참여함. SK하이닉스의 DRAM과 UFS를 비롯하여 레이저 조준용 거울, 위성 자세 제어 장치, 전기추력기용 할로우음극 등 다채로운 제품이 위성에 탑재될 예정임. 각 부품은 우주 방사선 영향, 진동, 극한 온도 등 실제 운용 조건에서 성능을 검증받게 되는 실정</li> <li>-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누리호 4차 발사에는 이미 다른 기업들의 소자·부품이 실릴 예정이며, 이번 프로젝트가 본격화됨으로써 국내 반도체·부품 업체들은 우주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발판을 마련. 우주청 관계자는 국내 우주산업의 자립도를 높이고, 나아가 해외 수출까지 견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확대 예정</li> </ul> <p><b>□ 민·군 합체 우주산업 키운다...공동 포럼 출범 (2025.03.18)</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주항공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방위사업청이 협력해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결성하고 출범식을 개최. 세 기관은 지난해부터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해 왔으며, 이번 포럼 출범으로 민간 부품 표준화, 국산화, 해외 진출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li> <li>- 포럼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용어표준, 소자급 부품, 수요대응, 국제표준 등 4개 워킹그룹을 운영. 민·군 역량을 결합해 한국형 우주산업 표준을 마련하고, 부품 스펙 정립과 우주 지식·정보 확산 등을 추진. 이를 통해 누리호와 다누리 등으로 축적된 기술 성과를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 가겠다는 구상임. 부품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가 관건으로 대두</li> <li>- 관계자들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상용 부품의 우주분야 적용이 필수라고 강조. 우주청은 이번 협력이 국내 우주기술 자</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국표원은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 예정. 방사청도 민간 이전과 수출산업화에 힘을 실어, 민·군 협력을 통한 우주산업 도약을 도모할 계획</p>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b>빈센-KRE,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 선박 공동 연구개발 AIP 획득 (2025.03.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선박 추진장치 전문기업 빈센과 선박설계전문기업 케이알이(KRE)가 한국 선급으로부터 국내 최초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 예인선 기본승인(AIP)을 획득. 이는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낮춘 선박 설계로 인정받 취득</li> <li>- AIP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안전성과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선박 설계에 대한 평가를 거쳐 수여되는 인증. 두 기업은 수소연료전지 예인선을 상용화하기 위해 앞으로 상세설계를 진행하고, 실용적인 선가로 보급이 가능하도록 협력할 예정</li> <li>- 이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수소연료전지 예인선이 상용화되면 해양 부문에서도 친환경 연료 전환이 본격화 되고, 다양한 선박 분야로 보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 국내 조선업계 역시 수소연료전지 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li> </ul> <p>□ <b>한화,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인증 획득..."친환경 선박 시장 공략" (2025.03.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권위의 선급 협회인 DNV로부터 200kW급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기본승인(AIP)을 획득함. 이로써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수소연료전지를 본격 판매할 수 있게 되고, 향후 MW급으로 용량 확장도 가능. 이 수소연</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료전지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EMFC) 방식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효율적 발전이 가능해 운송용에 적합하다는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국내 선급인 KR(한국선급) AIP 인증에 이어 글로벌 수준의 DNV 인증까지 획득함으로써 수소연료전지의 안정성과 규정 준수 능력을 입증.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해양 환경 규제와 무탄소 동력원 수요에 대응하며, 신규 시장 확대를 적극 노리고 있는 실정</li> <li>- 회사는 선박용 연료전지 형식 인증 등 추가적인 승인 절차도 확보해 무탄소 추진 시스템을 탑재한 선박 개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함. 한화오션 등 관련 계열사와 협력해 다양한 선종에 적용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개발하고, 선박 분야 탄소저감 솔루션을 선도하겠다는 계획</li> </ul> <p><b>□ 액화수소 밸브 국산화·수소버스 2000대 도입...수소경제의 개척자들 (2025.03.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중소기업 수립테크가 극저온 가스 밸브 기술을 바탕으로 액화수소 밸브를 국산화하고, 잠수함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정비 등 방위산업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 독일 기업 협력을 통해 과냉각 액체수소 펌프 개발에도 도전하며 국내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 향후 액화수소 운반선 건조 사업 참여로 확대 가능성을 모색</li> <li>- 전세버스 전문기업 원더모빌리티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를 도입해 통근버스와 전세버스 시장에서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 현재 수소 버스 가격과 충전 인프라 등 제약이 있으나, 업계 선두에서 적극적 도입을 추진하며 대중교통 분야에 수소 수요를 크게 늘릴 전망</li> <li>- 정부가 선정한 수소 전문기업은 109개(2024년 말 기준)로, 2030년까지 600개로 확충할 계획. 국산 액화수소 밸브와 수소버스 대규모 보급 같은 사례가 늘어나면서 민간의 수소산업 주도권 강화. 수소 전문·예비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과 해외 협력 강화로 국내 수소 시장을 확장하고 글로벌 진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부상</li> </ul>
대학교	<p><b>□ 인하대-인천시교육청과 2차전지·수소분야 창의융합진로교육 '맞손' (2025.03.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하대학교가 인천시교육청과 손잡고 2차전지 및 수소 분야 창의융합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시 에너지산업과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본 협약은 관련 분야의 기술 개발 및 홍보,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창의융합 진로교육 공동 개발 등을 포함함</li> <li>- 인하대는 이미 2차전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컨소시엄에 선정돼 2차전지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형 교육 과정을 확대할 예정임. 이번 협약으로 지역의 미래 에너지산업 전문 인력</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양성과 청소년 진로교육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하대와 인천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첨단기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운영하기로 함. 2차전지와 수소는 향후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는 만큼, 대학과 교육청이 힘을 모아 미래 인재 양성에 적극 매진할 계획</li> </ul>
해외	<p>□ <b>“수소 공급망 잡는 자가 승자” 바다위 9천km 실어나르는 日 (2025.03.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이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운송 전용항구인 ‘하이 터치(Hy touch)’ 를 고베항에 건설하고, ‘스이소 프런티어’ 라는 액화수소 운반선을 운영하며 호주산 수소를 대규모로 실증 운반함. 이 운반선은 영하 253도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해 수소를 장기간 이동시키는 데 성공해 주목받고 있는 상황</li> <li>- 일본 정부는 민관 공동으로 15조 엔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함. 기존 법 제도를 개선하고, 수소 관련 기업의 연구와 실증을 뒷받침해 글로벌 수소시장 주도권을 잡고자 함. 이를 통해 현재 1kg당 1만 원인 수소 가격을 2030년까지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li> <li>- 반면 한국은 현대차가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에 성공하고 법령(수소법)을 제정했으나, 수소 운송·저장 인프라와 구체적 제도화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 업계는 수소를 해외에서 대량 수입할 수 있는 인수기지나 운송망 확보가 필수라고 지적. 관련 법 개정과 적극적 투자를 통해 후발주자의 위치를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li> </ul> <p>□ <b>수소 산업 빠르게 키우는 중국...韓 위기감 가져야 (2025.03.1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이 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여 지난해 글로벌 수소차 판매량에서 국가별 1위를 차지. 중국은 ‘수소에너지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을 통해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5만 대 보급, 수소충전소 1200개소 이상 구축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li> <li>- 한국은 현대차 중심으로 수소차 기술을 선도했음에도 수소 인프라·정책 집중도가 낮아 시장 점유율이 줄고 있는 상황. 현대차가 토요타와 손잡고 수소충전기술 표준화 등을 모색 중이나, 중국 정부가 폭넓은 보조금과 산업 융합정책으로 빠르게 규모를 키우고 있어 위기감이 조성</li> <li>- 전문가들은 수소차 확산뿐 아니라 수소의 생산·유통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한국 정부도 수소산업의 장기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연구개발·보급 정책에 보다 강력한 지원과 통합 전략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존재</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p>□ <b>“SMR·수소환원제철·CCUS 등 기후테크 실증지원 확대해야” (2025.03.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산업 대전환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소환원제철,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같은 기후테크 분야에서 실증지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수소는 철강·전력 산업의 탈탄소화 핵심으로 지목되었고, 기술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중요성이 부각</li> <li>-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해외시장 공략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원자력·수소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 석유화학 업계 역시 스코프1~3 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며, CCUS 관련 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를 요청</li> <li>- 정부와 산업계는 실증단계 기술을 조속히 시장화하는 것이 탄소중립 달성과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건이라고 강조. 연구개발과 파일럿 테스트가 병행될 수 있도록 규제·행정절차 개선이 필요한 상황. 업계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해외 기술협력을 통해 기후테크 산업을 적극 성장시켜야 한다고 제언</li> </ul>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b>유아이헬리콥터, 이브에어모빌리티와 UAM 시장 진출 준비 (2025.03.1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항공 전문 기업인 유아이헬리콥터가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 엠브라에르 계열사인 이브에어모빌리티와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 도심항공교통(UAM)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획.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는 국내 eVTOL 운항의 기술적·운영적 요건 마련과 인프라 구축부터 공공 및 상업용 서비스 모델 연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협업을 추진할 예정.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국가 사업과 연계해 UAM 상용화에 기여하면서 미래항공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li> <li>- 유아이헬리콥터는 헬리콥터 MRO(정비·유지·보수) 전문기업으로서, 세계적으로도 드문 헬리콥터 메인 블레이드 창정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항공·방산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평가받음.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고도의 정비·운영 노하우를 UAM 및 무인기(UAV) 영역으로 확장해, 시장 경쟁력을 한층 높여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음. 이번 협약이 가져올 시너지로 인해 국내외 항공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입지 확보가 기대</li> <li>- 이브에어모빌리티는 엠브라에르의 풍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eVTOL 항공기 개발,</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항공교통관리(UATM) 솔루션, 도심항공 인프라까지 포괄하는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임. 이미 여러 도시와 실증사업을 진행하며 UAM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음. 이번 협력으로 한국이 추진하는 미래 교통수단 도입에 탄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며, 양사는 이를 통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함께 공략할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p>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b>민간 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 발사대도 독자개발 성공...다음 달 해상 운송 (2025.03.17)</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민간 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위성발사체인 ‘한빛-나노’ 발사를 위해 필요한 발사대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발사체와의 체계연동시험까지 마침. 발사대 기립 기능과 연료·산화제 공급을 위한 엄빌리컬 분리, 발사체 고정장치 분리 등 핵심 요소를 점검하면서 기술 안정성을 입증함. 발사대 자체개발은 국내 민간 우주산업 역량을 한 단계 높인 성과로 주목</li> <li>- 이노스페이스는 다음 달 초에 이 발사대를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로 해상 운송하여 5월에 설치 및 최종 점검을 진행할 예정. 이미 한빛-나노 발사체를 통해 추력을 검증한 경험이 있으며, 민간기업이 자체 발사대까지 완비해 발사 전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국내에서 드문 사례. 글로벌 민간 우주시장 트렌드에 맞춰, 자체 인프라 기반 발사 서비스를 제공 가능</li> <li>- 회사 측은 발사대 수출과 발사 서비스 경쟁력 확보까지 내다보고 있으며, 향후 민간 로켓 발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국가 차원의 우주정책도 민간기업의 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이어서, 이노스페이스의 성과가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됨. 자체 개발 역량을 축적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우주 비즈니스의 핵심 과제로 부상</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p><b>□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최종 발사 성공...초기 운영 돌입 (2025.03.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공동 연구진이 개발한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가 여덟 번의 연기 끝에 드디어 성공적으로 발사됨. 우리 시각 12일 낮 12시 10분에 이뤄진 발사 직후 고도 약 650km 태양동기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고, 약 1시간 20분 뒤 노르웨이 스팔바르 제도 지상국 센터와 교신에 성공함. 이로써 스피어엑스의 본격적인 우주 임무 시작이 가시화되는 실정</li> <li>- 스피어엑스는 적외선 관측이 가능한 우주망원경으로, 전 하늘을 102가지 색으로 지도화하여 최초의 적외선 3차원 우주지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정. 앞으로 2년 반 동안 4차례에 걸쳐 우주지도를 작성해 우주 형성·진화 과정과 생명체 탐색 등 과학 연구에 광범위하게 기여할 예정. 이는 지상 망원경으로는 관측하기 어려운 파장 영역을 포착할 수 있어, 천문학적 발견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예상</li> <li>- 스피어엑스는 발사 이후 약 40일 정도 시험 가동을 거친 뒤 곧바로 과학임무 관측에 들어갈 계획. 당초 2월 28일 발사 예정이었으나, 부품 이상과 기체 결함, 기상 악화, 발사 순서 조정 등의 사유로 발사가 여러 차례 연기됨. 이번 성공으로 한미 양국의 우주기술 역량이 재조명되고, 미래 적외선 우주 관측 분야에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li> </ul>

※ 본 발간물은 온라인 상의 자료를 재정리한 것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